학동들의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양상

청주전문대학 논문집 제5집, 1978.

김 순 임

유행성이하선염의 예방접종율이 7세가 8.4%, 8세가 6.8%, 9세가 4.8% 였고 10세 부터는 전혀 예방접종은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예방접종약 개발이 1968년이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 1974년 이후 이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계몽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되며 성별, 연령별, 발생율은 8세남아가 39.6% 으로 가장 높고, 8세여아가 37.6% 로 그 다음 이었는데 백에 의하면 10~14세군에서 mumps 에 대한 항체 양성율이 가장 높고 5~9세군부터 항체양성율이 급상승한다고 보고했고 박도 5~10세에 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본 조사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7~8세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여의 차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은 발생을 나타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Nelson 의 보고와 비슷하였다.

발병율도 8세남아가 41.3, 8세여아가 38.8로 발생율과 비례하여 높았는데 Gordon 이 가장 많은 발병나이를 6세로 보고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월별 발생율은 가장 높은 달이 5월로서 10.9이고 4월이 2.4, 6월이 2.2인데 Beeson , 과 Nelson 에 의하면 가장 발생율이 높은 것이 늦겨울과 봄, 그중에서 특히 3월과 4월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조사는 5월이 가장 높고 4월과 6월에 걸쳐 있으므로 봄부터 초여름 사이 발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방접종군과 비접종군의 발병율에 대한 통계학적 검정결과 별 의의가 없는데, 최근 예방접종약이 보급되었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의 미접종상태이며 아직 예방접종약에 대한 확실한 효과면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나(표2)에서와 같이 접종추세가 늘어가는 것으로 보아 불원간 접종군과 비접종군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규명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급별 발생율은 2학년 2반이 250.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1학년 6반으로 150.0이었는데 2학년 2반에서 첫 환자가 나타났고 가장 높은 발생율로 미루어 이 학급이 전체의 Focus 로 추측되며 3학년에 이 환자가 전혀 없는것은(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거 많은 학생이 제일 많아 군중 면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요 약

학동들의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8년 3월부터 8월까지 경북 안동시 안동국민학교 학생 2,754명 (남 : 1,447, 여 : 1,307)을 대상으로 연령별 예

방접종상태와 발생율 및 발병율을 조사하고 월별 발생율, 예방접종 효과를 관찰하였다.

예방접종 실시율이 7세에서는 8.4%, 8세에서는 6.2%, 9세에서는 4.8%로 나타났으나 10세 이상에서는 전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양호실 인식도 및 이용도에 관한 연구

조대병설 간호대학논문집, 1978.

박 재 경

197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화순군내 국민학교 중 2개교를 선정하여 양호실 인식도와 이용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호실 위치를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으로는 "모른다" 10명(1.66%) "알고있다" 500명(98.33%)순이었다.

(2) "양호실은 어떨때 찾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으로는 "아플때" 575명(95.83%), "건강상담"19명(3.16%), "피곤할때" 6명(1.00%)이었다.

(3) "학교에서 아플때 가고 싶은 곳은?"이란 물음에 응답으론 "양호실" 493명(83.16%), "집" 86명(14.33%), "병원" 21명(3.50%)이었다.

(4) "양호교사와 함께 있고 싶을때는?"이란 물음에 응답으로 "언제나" 258명(43.00%), "운동회때"127명(21.16%),"소풍 때" 119명(19.83%) "자유학습의 날"96명(16.00%)이었다.

(5) "학교에서 급우가 아팠을때 제일 먼제 연락해야 될 사람은?" 이란 물음에 응답으론 "양호교사" 302명(50.33%), "담임교사" 240명(40.00%), "교장선생님"34명(5.66%), "부모님"24명(4.00%)이었다.

(6)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택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응답으로는 "양호교사" 321명(53.50%), "담임교사"107명(17.83%), "교장선생님"98명(16.33%), "자기자신"38명(6.33%), "부모님" 36명(6.000%)의 순이었다.

(7) 양호실 월별 이용 상황은

6월 265명 (44.16%), 3월 255명(42.50%),
5월 252명(42.00%), 4월 216명(36.00%),
7월 200명(33.33%), 8월 193명(32.16%)의 순서이었다.

(8) 질병별 이용 상황은